

군인가족의 심리적 특성 이해를 통한 영적 지지

전 요 섭*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군인가족(배우자와 자녀)의 심리분석을 통한 영적 지지에 대하여 다루고 군목회상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료 제시에 있다. 군인가족은 군대와 관련하여 일반인 가족과는 양상이 다른, 군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심리적 특성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군인가족은 남편/아버지의 야간 근무, 비상, 특수 임무, 기동, 군사 훈련 및 해외파병,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가족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남편/아버지는 이런 임무를 수행으로 군인가족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우자의 심리는 군의 폐쇄성으로 인한 고립감, 고독감이 나타나고 군인자녀는 부성부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부성부재를 극복하는 애착이론의 보상가설은 군인자녀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군인가족에 대한 영적 지지와 돌봄으로 가족 탄력성(복원력), 강인성의 요인으로서 신앙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군인가족이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정신건강 및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군인가족을 위한 영적 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예배이다. 가정예배를 포함한 영적 지지는 군인가족의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제어: 군대, 군인가족, 군대목회, 영적 지지, 부성부재

• 논문 투고일: 2019년 9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30일
*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교수

• 논문 수정일: 2019년 10월 22일

I. 여는 글

군인은 국방 및 군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투철한 국가관, 애국심, 희생정신 등이 요구되는 특수직 공무원이다. 군인은 직급상 사병, 부사관/준사관, 장교(위관, 영관, 장관급)로 나눈다. 의무복무 연한을 마치고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군의 선발기준에 따라 장기복무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직업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직업군인(장교, 준사관/부사관 등)은 대부분의 경우, 결혼적령기에 이르면 가족을 구성하여 근무지 군 주거시설(군인 관사, 군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인가족’(military family)이라함은 의무복무 중에 있는 사병의 원가족으로서 부모, 형제를 의미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직업군인 가운데 기혼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직업군인은 일반직업에 비해 그 특성상 국가관, 애국심, 희생정신이 투철하여 자신의 가족보다도 국가에 우선순위를 둔 집단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Keith와 Whitaker(2008: 147-166)는 군인의 국가관, 애국심, 충성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군인은 이미 군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또한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군인은 국가와 군을 명예롭게 여기고, 모든 우선순위에 임무를 최고에 두며, 군에서 죽을 수 있는 순교에 가까운 각오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군인가족은 이미 군과 결혼한 군인의 혼외관계(extramarital affair)에 있다.”고 비유했다. 직업군인을 배우자로 선택했다는 것, 직업군인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 직업군인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편/아버지의 국방과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군 상황은 독특하여 군인가족으로 하여금 상당한 심리적 적응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인간의 심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군인가족의 심리적 특성은 일반인 배우자와는 양상이 다른, 군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군인가족은 남편/아버지의 당직근무 및 긴급 임무수행, 작전, 훈련, 파병 등으로 인한 잦은 별거를 기본으로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고로 불안이 발생하며, 이는 정신건강에 폐해를 초래한다.

이 연구는 군인가족 구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군 목회상담에서 어떻게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직업군인의 절대 다수(한국 군의 여군 비율은 6.7%)를 차지하는 남성 기혼자의 배우자인 여성과 자녀를 군인가족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심리상태와 정신건강은 어떠한가, 그들을 위한 영적 지지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관련 선행연구 동향

군인가족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미군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미군은 거대 병력(미군 병력은 2,141,90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하여 양질의 경험적, 실증적 연구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미군은 근래 개입한 전쟁(리비아전, 시리아전, 이라크전, 소말리아전, 파키스탄전, 아프카니스탄전 등)에서 많은 군인들의 해외파병으로 본토에 남겨진 군인가족들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확보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전문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군인의 전투파병으로 남겨진 군인가족의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군인가족이 됨으로써 구조적

으로 갖게 되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집중시키고 있다. Gewirtz, Degarmo과 Zamir (2018)는 군인가족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2018년에 표준화된 검사지 “군인가족 스트레스 모델”(Military Family Stress Model)을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척도가 개발되면 군인가족이 느끼는 디스트레스(distress)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더욱 집중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미군은 지난 10년 동안 전투에 배치된 군인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가족 기능, 가족 스트레스 등을 연구해왔다. 또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족 탄력성(복원력: 가족에 발생된 문제를 가족들이 극복하는 능력), 가족 강인성(가족이 특정 스트레스 등 문제에 강인하게 대처하는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파병에서 귀국한 남편/아버지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심리정서적 진단은 우울, 수면장애,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및 조절장애 등이다(Mansfield et al., 2011). 군인가족은 남편/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목격하면서 부정적 정서의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 남편/아버지가 해외파병에서 전투 스트레스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경험했을 때 이는 단순히 남편/아버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애정관계 그리고 자녀의 양육관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가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맨스필드 등(Mansfield et al., 2011)은 5-17세 군인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가 전투지역에 파병되었을 때 그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는데, 파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와 자녀도 불안 및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Cozza et al., 2014)에서는 현역 군인, 예비역 군인, 그리고 군인가족들을 위한 심리학적 돌봄을 제시한 단행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군인가족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상담지침서로서 『군인가족상담』(*Counseling Military Families*)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이 그것이다. 이 책은 군인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단기상담모델을 제시하고 있다(Hall, 2008).

Brewin(2001)은 해외파병 및 전투부대에 배치된 군인과 그 배우자 간의 이혼 및 별거의 발생 비율이 16.5%인 것을 중시하면서 이는 군인이거나 그 배우자 모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인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는 군내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증가하는 것이 사고예방 및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피력했다(Cogan, 2014). 이런 상황과 연구결과들을 분석하는 것은 장차 우리 군이 겪을 수 있는 유사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된다.

정신의학에서는 군인배우자가 훈련 및 전투 중 사망한 경우, 군인가족이 겪는 비애(grief)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구결과로는 군인가족에게 국가관, 애국심, 희생정신을 고취시킨 상태에서 남편/아버지가 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에 대한 비난이 감소하고, 비애반응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적응 및 복원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Kristensen & Weisæth, 2012). 군이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시, 비난이나 면하기 위해 군인가족에게 국가관, 애국심을 고취시키거나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사실상 있지도 않지만, 군인가족은 높은 국가관, 애국심 및 희생정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군인가족의 심리적 특성과 정신건강

1) 배우자의 심리적 특성

군인가족도 인간이 겪는 발달상의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는다. 하지만, 군인가족은 남편/아버지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전쟁 및 전투, 파병, 작전, 훈련, 위험지역 근무, 부상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편/아버지의 안녕에 대해 항상 불안을 겪게 된다(Rodriguez & Margolin, 2015). 생명의 위협이나 사고 및 부상의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극심한 불안이며 가족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승진하지 못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퇴직(도태) 당하는 군 조직은 다른 직업구조에서보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군인가족에게도 그대로 전이 될 수 있다. 또 전역(discharge)에 즈음하여, 일반인에 비해 이직에 대한 더 큰 스트레스를 겪는데 동일 분야의 이직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군의 특수성에 익숙하고 장기간 사회적 단절로 인해 적응성이 떨어진 상태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군인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들에게서 높은 스트레스와 높은 우울감이 발견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Dimiceli, Steinhardt, & Smith, 2009). 우울감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내용은 주로 군인배우자의 불규칙적인 생활과 피로감, 불안감, 고립감 등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다. 이런 상태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은 군인배우자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전이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홍근미, 2018).

남편/아버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군인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에 기인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은 일-가정을 성공적으로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일 수 있다.

군 특성상 보안을 이유로 폐쇄적 생활을 하는 군인가족의 심리상태는 주거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접촉이 원활하지 못하여 격리감, 소외감, 고립감 등 독특한 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Hall, 2008).

이런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맡은 대상이 군종목사이다. 군종목사는 신자들의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지지해주는 전문가로서 군의 요청에 따라 각 교단에서 파송한 일종의 선교사이며, 목회자임과 동시에 상담자이다. 군종목사의 사역대상은 간부(장교, 준/부사관) 및 사병과 군무원은 물론, 그 가족들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목회상담을 비롯한 목회적 돌봄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군종목사의 목회적 돌봄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장병이 되어야 하지만 군인가족도 분명히 목회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목회적 차별, 소외를 느껴서는 안 된다. 군인교회는 군 특성상 계급체제 속에 존재하지만, 신자(영관장교, 위관장교 및 준/부사관, 군인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영혼을 가진 인격자이며 목회 대상자로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군인가족에게는 부여된 계급이 없으나 남편/아버지의 계급에 따라 군인가족 간 그에 준하는 비공식적 수직체계에 대한 인식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골로새서 3: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말씀처럼 교회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행 15:9),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

시도다”(롬 10:12)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 2:4),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9) 등의 신약성경에서 차별과 관련된 성경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 신자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목회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군인가족들이 수직적, 계급적, 차별적 인식을 허물거나 해소하는 것은 신본적으로 높고 낮은 자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군인가족은 이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차별성,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 수 없으며 이는 민간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종목사가 겪는 목회적 갈등 가운데 하나는 간부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자 하나,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비율에서 준/부사관 신자 및 그 가족의 출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장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비해 준/부사관은 동일지역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거주지 인근의 일반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군인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자신의 가족이 갖게 될 상대적 열등감을 회피하기 위해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인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안문제, 군인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갖지 못하는 문제,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사병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위로하는 역할에서 배제되는 또 다른 소외감, 기독교 군인가족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생활사건스트레스로서 지속적이고, 축적된 문제들은 부부생활만족도나 가족생활만족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Brown(2012)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가족들이 군종목사로부터 상담받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가족불화였으며, 그 비율은 80.5%로 나타났다. 군종장교 초급, 고급과정에서 모든 군종장교는 교과과정에 따라 군 상담학을 학습한다. 실제로 군종목사의 목회상담 능력향상은 주요 목회대상인 군인은 물론, 군인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한 회복의 자원이 된다. 군인가족이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안정상태에서 가정생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군종목사의 목회적 돌봄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다.

2) 군인자녀의 심리적 특성: 부성부재

군인으로서 아버지도 당연히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군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양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가족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인데, 직업군인은 일부 도심지에 위치한 행정부대 근무자를 제외하고,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군인 아버지는 자녀와 규칙적인 대면/대화를 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은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군인자녀들이 한 부모 가족(single-parent family)은 아니지만, 군인자녀는 마치 한 부모 가족구조와 유사한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Dimiceli, Steinhardt, & Smith, 2009). 많은 경우에 아버지의 당직근무 및 긴급 임무수행 또는 작전, 훈련, 파병 등으로 부성부재(absence of fatherhood)를 경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부성부재는 아버지성(fatherhood)의 상실이나 결핍을 뜻하며 아버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가 부성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부성부재, 심리정서적 부성부재, 영적 부성부재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리적 부성부재는 어떤 이유에서 아버지와

함께 기거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심리정서적 부성부재는 물리적 부재와 중첩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기거하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심리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리고 영적 부성부재는 물리적 부재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역시 아버지와 함께 기거한 상태라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심리정서적 지지는 영적 지지와도 밀접하지만 동일개념은 아니다. 심리정서적 지지는 있을 수 있으나 영적 지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에서 부성부재는 자녀에게 성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Guardia, Nelson, & Lertora, 2014). 또 부성부재 상태의 청소년은 성역할 정체성을 확고하게 수립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전요섭, 2010).

Martin과 McClure(2008)의 분석에 따르면, 아버지가 해외파병 등으로 일정기간 부재한 경우는 아버지의 부재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재회의 기대를 갖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등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잦은 비규칙적 당직근무 및 긴급 임무수행, 훈련 등 군 특수 상황으로 인해 자녀에게 (보안문제로) 아버지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자녀는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부재가 아버지 존재의식과 아버지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킨다. 이런 부성부재는 자녀에게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군인자녀는 아버지와 충분하고 빈번한 정서적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는 종종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거나, 성인과의 소통이 서투를 수 있어 사회화 과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인생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장벽을 허무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되기도 하고, 친밀감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오운선, 최아람, 2019).

아버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빈번한 주거지 이동과 군부대의 지역적 특성으로 불충분한 교육환경 등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Arnold et al., 2017; Lisa, 2014). 군인가족의 잦은 전학은 자녀의 성격에 따라 양극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는데, 하나는 빈번한 전학이 자녀로 하여금 대인관계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런 경험을 빈번하게 해보지 못한 또래보다 새로운 환경에 훨씬 적응을 잘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odriguez, 1984).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아버지와 별거하여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군인가족은 전형적인 한 부모 가정 형태가 되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진다.

우리나라 군인의 이주와 별거를 조사한 결과, 대령의 70%, 중령의 56%는 복무기간 중 11회 이상의 이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령의 50%, 중령의 30%는 군인가족이 겪는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별거를 선택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채봉, 최광현, 2012). 이처럼 특정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별거는 또 다른 차원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가족별거 경험은 남편/아버지나 군인가족 모두에게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all(2008)은 기혼 군인이 가족과 별거해야 하는 복무상황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외로움과 고독감으로 인해 또는 가족 통제력의 약화로 인해 혼외 성관계를 갖게 되거나 포르노그래피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군인가족의 별거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가족해체 형태의 별거(marital separation)와는 양상이 다른데, 이를 가족치료에서 ‘선의적 별거’라는 용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의미는 군인가족의 취업, 안정적

자녀양육 등의 이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어떤 경우라도 별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폐해를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별거로 인한 군인가족의 가족 탄력성, 가족 강인성 등이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일 수는 없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이며, 부부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김준수, 2005).

발달단계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지의 부족은 군인자녀에게 다양한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별거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와 개인적인 대면/대화의 부족으로 아버지의 지지(사랑하는 느낌, 사랑받고 있는 느낌, 자신이 능력 있다는 느낌 등) 부족은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우울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rohschein, 2005).

가족치료학자 Cruce(1989)는 가족구조를 ‘나비 모빌’(mobile)로 비유하여 설명했다. 나비 모빌은 가족구성원 각자가 독립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들도 그 위치와 안정성에 영향과 변화가 일어난다. 게다가 나비 모빌 가운데 하나가 절단되었을 때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가족 중 특정 구성원의 부재나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은 다른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가족 안정성을 흔드는 일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빈번한 당직근무 및 긴급 임무수행, 훈련, 작전, 파병 등으로 아버지가 가정에 없을 때 나비 모빌의 불균형처럼 부성부재로 인해 가족기능의 문제가 군인가족에게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성부재 상태에서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② ‘이 외로움이 얼마나 갈까?’ ③ ‘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④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⑤ ‘향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⑥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⑦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⑧ ‘교회에서 온전한 신자로 용납 받을 수 있을까?’ ⑨ ‘내게 도움이 될만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등으로서 이는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한다. 군인 남편/아버지와 별거상태에 있는 군인가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영향력이 감소됨으로써 자녀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나타낸다.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개입하여 무력감과 두려움에 대하여 방호막과 버팀목이 되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험은 발달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성부재 상태의 군인자녀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무력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감당해내지 못하고 책임회피의 심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Erikson(1963)의 성격발달론에 의하면, 이런 심리적 특성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시절(12-18세)에 경험되면 역할혼미(role-confusion)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울도 부성부재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심리정서적 특징이다(전요섭, 이향숙, 2010).

3) 애착이론의 보상가설에서 얻는 대안

일치가설(correspondence hypothesis)은 자녀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심리적 애착대상으로 삼는다는 애착이론이다. 자녀가 아버지와 안정애착이 형성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늘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며 돌보아주는 존재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선한 아버지 이미지는 선한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모자녀 간에 안정애착을 경험한 아동기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채택하는 성향이 나타난다(Kirkpatrick, 1992).

일치가설에 따르면 한 부모 가족이나 부성부재를 경험한 자녀는 문제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에 투사하거나 대체하여 자신과 이격되어 멀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되거나,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 하나님 이미지 형성 등 신앙 대상을 바르게 갖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는 불안정애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전요섭, 이향숙, 2010). 그렇다면 이 이론은 구조적 부성부재로 인해 아버지의 역할이 다소 부족한 군인가녀에게 바른 신앙이나 바른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는 좌절만을 안겨주는 이론이다.

하지만 보상가설(compensation hypothesis)은 복음주의 목회상담이론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안정애착을 확립하는데 부족하거나 실패한 자녀가 선한 애착 대체대상을 찾는다면 자신에게 부족한 애착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가설이다(Anisworth, 1985). 보상가설은 부성부재로 인해 애착이 결핍되거나 좌절된 경우, 이를 경험한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핍 또는 좌절되었던 아버지 이미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여 결국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NICHD, 1997).

따라서 보상가설에 기초한다면 아버지의 죽음이나 질병, 이혼 또는 군인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잦은 당직근무 및 긴급 임무수행, 작전, 훈련, 파병 등과 같은 군 특수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아버지와 다소 불안정애착이 형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애착 대체대상이 확립되기만 한다면 심리정서적으로, 정신적,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rkpatrick과 Shaver(1992)는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의 경우, 결핍된 애착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는 보상가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아동기 애착 경험과 그 후에 발달시킨 신앙과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따라서 군인가족 구조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 바른 신앙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부성부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3. 군인가족에 대한 영적 지지와 돌봄

군인가족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가족 탄력성, 강인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신앙이다. 다양한 신앙요소들이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기반이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에 영적 지지와 돌봄은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동일한 사태에 처해 있다 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환경적, 신체적, 성격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요인도 있다. 따라서 군인가족들이 겪는 환경적, 심리정서적, 구조적 문제들이 많지만 영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의지를 향상시킨다. 군인가족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불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심리적 터전이 될 수 있다.

Canda와 Furman(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군인가족에게 제공되는 영적 지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감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며, 영적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치료(family therapy)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핵심요소를 일컬어 ‘지지’와 ‘인도’라고 주장한다(Conoley & Conoley, 2009). 지지는 심리정서적, 환경적, 영적 배려인데, 군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자녀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이해심은 군인자녀를 기능적으로 작용하게 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인도의 개념은 자녀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정예배가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군인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가정의 영적 일체감과 강인성이다

(Maynard, 1982). 즉 영적 일체감과 강인성 형성을 위해서 가정예배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없이도 남은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자녀에게 기독교신앙을 형성해주는 구체적인 통로를 갖는 것이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구성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족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한 음성으로 찬양하는 것은 가족 간의 영적 교제이며 가족 탄력성, 강인성, 응집력 향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인가족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자녀 간의 사랑, 신뢰, 친밀감을 형성한다면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자녀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Augsburger & Augsburger, 1994).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 또는 결속력을 형성하는 것은 가족기능이 잘 발휘되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Olson & DeFrain, 2006). 가정예배를 통해 군인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한 절제와 통제 그리고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영적 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부의 이혼률이 0.2%라는 통계는 가정예배가 가족 탄력성, 강인성, 일체감과 응집력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Meier et al., 1991). 이런 것들이 가족 일체감, 응집력, 강인성 등이 떨어진 군인부부에게서 이혼율이 16.5%였다는 브레윈의 분석에 대하여 가정예배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군인가족의 구조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을 수 있으나 가정예배가 자녀로 하여금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성부재를 극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딤후 1:5)는 말

로 그의 믿음을 칭찬한 일이 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가 부성부재 상태에서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바람직한 신앙교육을 받아 성장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사도행전 16:1에는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1:5에는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 아버지가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채천석, 이덕신, 2009). 아버지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을 염두에 둘만하다(Jackson & Lake, 1979; Lockyer, 1982). 따라서 디모데가 모자로 구성된 한 부모가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심리정서적, 정신적, 영적 지지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부성부재의 가정이었을 것이다. 디모데는 부성부재 상태를 극복하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 결국, 여러 사람들로 부터 칭찬 듣는 사람(행 16:1-2),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딤후 1:5), 바울의 동역자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롬 16:21, 고전 16:10),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빌 2:22),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사람(살전 3:2)으로 평가받을 만큼 훌륭하게 성장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II. 닫는 글

이 연구는 군인가족의 심리적 특성 이해를 통한 영적 지지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군인가족은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심리적

서적 문제를 갖는다. 이런 문제는 영적 문제를 야기하며 목회상담이 다루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군인가족은 군목회 상황에서 중요한 목회 돌봄 및 상담의 대상이다. 군인가족은 일반인 가족과는 양상이 다른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도도 높으며, 정신건강 및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노출되기 쉽거나 노출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군인가족으로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가족 탄력성, 강인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신앙이다. 한 부모 가족형태의 군인가족에 대한 영적 지지와 돌봄은 디스트레스의 감소, 부정부재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예배를 통한 영적 지지는 그 가족들이 남편/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심리정서적 불안감소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며,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정예배는 가족의 일체감을 형성해주고, 가족 탄력성, 강인성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군인가족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척도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타당화 검사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 군인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 부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여 표준화된 검사지를 개발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로서 구체적으로 영적 지지의 어떤 부분이 군인가족의 불안감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계연구를 통해 이 연구와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 김준수 (2005). 한국문화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5, 87-107.
- 문채봉, 최광현 (2012).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전략: 미군 선형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14-28.
- 번역위원회 (1982). 성경연구 올시리즈, Lockyer, H. (nd). *All the Men of the Bible*. 서울: 로고스.
- 오윤선, 최아람 (2019). 기독 후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7(1), 207-246.
- 전요섭 (2010). 청소년이 인식한 부성부재와 성역할 정체성 및 하나님 이미지의 구조적 관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1237-1253.
- 전요섭, 이향숙 (2010). 성인 애착행동과 하나님 애착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고찰: Kirkpatrick의 가설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5(3), 229-264.
- 홍근미 (2018). 중년여성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기독교상담 방안. *복음과 상담*, 26(1), 265-294.
- Anisworth, M. S. (1985). Attachments across the life span.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e*, 61(9), 792-812.
- Arnold, A. L., Lucier-Greer, M., Mancini, J. A., Ford, J. L., & Wickrama, K. A. S. (2017). How family structures and processes interrelate: The case of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academic success in military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8(6), 858-879.
- Augsburger, M. S., & Augsburger, E. (1994). *How to Be a Christ Shaped Family*. Wheaton: Victor.
- Brewin, B. (2011). Mental health treatment for military family members has grown 15% annually since 2001. *Washington Atlantic Media*, 1.
- Brown, T. M. (2012). A needs assessment of congregation and clergy roles in serving military families.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Social Thought*, 31, 348-371.
- Canda, E. R., & Furman, L. D. (201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gan, A. M. (2014). Supporting our military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 of Occupational Therapy*, 68(4), 478–483.
- Conoley, C. W., & Conoley, J. C. (2009). *Positive Psychology & Family Therapy*. Hoboken, NJ.: John Wiley.
- Cozza, S. J., Matthew G., & Ursano Robert J. (2014). *Care of Military Service Members,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Cruce, S. W. (1989). *Another Chance*. Palo Alto: Science & Behavior.
- Dimiceli, E. E., Mary A. S., & Shanna E. S. (2009). Stressful experiences, coping strategies, and predictors of health-related outcomes among wives of deployed military servicemen. *Armed Forces & Society*, 36(2), 351–373.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Gewirtz, A. H., David S. D., & Osnat Z. (2018). Testing a military family stress model. *Family Process*, 57(2), 415–431.
- Guardia, A. C., Nelson, J. A., & Lertora, I. M. (2014). The impact of father absence on daughter sexual development and behaviors: implications for professional counselors. *The Family Journal*, 22(3), 339–346.
- Hall, L. K. (2008). *Counseling Military Families: What Mental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Know*.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Jackson, F. J., & Lake, K. (1979).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Part I,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Keith, D. V., & Whitaker, C. A. (2008). Military families and family therapy in Kaslow, F. L., & Ridenour, R. I. (Eds.). *The Military Family*.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 Kirkpatrick, L. A. (1992). An attachment-theory approach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1), 3–28.
- Kirkpatrick, L. A., & Shaver, P. R. (1992).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romantic love and religious belie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266–275.
- Kristensen, P., Weisæth, L., & Heir, T. (2012). Bereavement and mental

- health after sudden and violent losses. *Psychiatry*, 75(1), 76–97.
- Lisa M. H., Heather M. M., & Annie K. S. (2014). Parentification in military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9, 123–134.
- Mounce, W. D. (2009). 목회서신 (채천석, 이덕신 공역, *Word Biblical Commentary, 46: Pastoral Epistles*. 서울: 솔로몬. (원전 2000년 출판).
- Mansfield, A. J., Kaufman, J. S., Engel C. C., & Gaynes. B. N. (2011). Deployment and mental health diagnoses among children of US Army personnel.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5(11), 999–1005.
- Martin, J. A., & McClure, P. (2008). Today’s active duty military family: The evolving challenges of military family life in martin, J. A. Rosen, L. N., & Sparacino, L. R. (Eds.). *The Military Family*. New York: Taylor & Francis.
- Meier, P. D. Frank B. M., Frank B. W., Donald R. (1991).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 Miller, D. R. (1994). *Counseling Families after Divorce*. Dallas: Word.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mother–infant attachment security. *Child Development*, 68, 860–879.
- Olson, D. H., & John D. (2006). *Marriages & Families*. Boston: McGraw–Hill.
- Rodriguez, A. J., & Gayla M. (2015). Military service absences and family members’ mental heal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9(4), 642.
- Strohschein, L. (2005). Parental divorce and child mental health trajecto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1286–1300.
- Yarhouse, M. A., & James N. S. (2010). 기독교가족치료 (전요섭외 공역, *Family Therapies*. 서울: CLC. (원전 2008 출판).
- Whitehead, B. D. (1993). Dan quayle was right. *The Atlantic Monthly*, 48. “Manpower”
-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united-states-of-america#manpower에서 2019년 7월 31일 인출.

【 Abstract 】

Spiritual Support through Psychological Problems Analysis of Military Family

Jeon, Joseph
Sungkyu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spiritual support and mental health maintaining for military family in Korean military: centering around military member's spouse and children. Korea has relatively few studies on military familie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Multidimensional studies of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problems for active military, reservists and military famil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the contents of spiritual support for military families have been difficult to find.

This research dealt with the military families'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eir problems. The researcher observed this proble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inistry,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in military. One of the best spiritual supports is family worship. Spiritual support including family worship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reduction in the military family. Family worship also makes the family hardiness,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healthiness. Also, one of the supporting methods for a child who has absence of fatherhood of military family is compensation hypothesis of attachment theory. Family worship as compensation hypothesis is a mean of spiritual support methods for absence of fatherhood child.

Key words: military, military family, military ministry, spiritual support, absence of fatherhood